

‘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 2/3/4 차 통합보고서’에 대한 NGO 보고서

# 북한여성실태 보고서

Situation Report of Women’s Rights in the DPRK

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출일: 2017년 9월 30일

원본작성 언어: 영어



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

Citizens'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(NKHR)

2017년 제68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북한심의를 앞두고 북한인권시민연합(이하 시민연합)은 2017년 9월, 23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을 인터뷰하여 위 위원회에 NGO보고서를 제출하였다. 인터뷰 대상자들은 2013년과 2016년 사이에 탈북한 사람들로 평양 및 중국 접경 지역인 함경북도, 양강도 등 다양한 지역 출신이며, 소수의 조사 대상자만이 시골 출신이다. 시민연합은 2013년에도 60명의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므로, 2013년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에 대해 확인이 가능했다.

## 의료 서비스 규정

북한은 이번에 제출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(CEDAW) 국가 보고서와 2017년 9월에 열린 아동권리위원회(CRC) 심의보고를 통해 생식보건전략(Reproductive Health Strategy 2011-2015)을 공식화 했다. 그러나 2011년부터 모자보건 개선 결과에 대한 보고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병 예방 내용을 포함한 어떠한 성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

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명의 여성 중 10명이 산전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. 이는 2013년에 실시한 조사와 대비하여 증가 한 것이지만, 이들 중 과반수는 혈액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받지 못했으며, 의사가 손으로 배를 만져보고 태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. 이는 이전 조사에서 얻은 결과와 다르지 않다. 또한,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의사를 찾는다고 증언하였다.

**Table 1: Perinatal Care**

Question	Yes		No		No Answer	
임신 기간 동안 병원에서 검진을 받거나 의사와 상담한 적 있다.	10	43%	5	22%	8	35%
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거나 검진을 받았다.	8	35%	7	30%	8	35%
비용 때문에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집에서 출산했다.	2	9%	9	39%	12	52%
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집에서 출산했다	2	9%	9	39%	12	52%
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출산했다.	6	26%	6	26%	11	48%
출산 후 약품을 무상으로 지급받거나 진료를 받은 적 있다.	4	17%	8	35%	11	48%

조사 대상자들은 성교육 및 피임교육이 전학년 교과과정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. 이는 이전에 실시한 조사와 같은 결과이다. 최근에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6명(1990년











